

재미있는 옛이야기

● 옛이야기 공부모임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글차례

◆ 옛이야기의 중요성/1

◆ 옛이야기의 형식적인 특징/4

◆ 옛이야기는 들려주는 것이다./8

◆ 옛이야기 공부를 하면서/12

- 선생님! 옛날이야기 해주세요.

- 옛날 옛적에

◆ 재미있는 옛이야기 11가지/17

옛이야기포일 회원 :

윤은주, 오윤정, 권미정, 서미연, 유은성, 김정숙, 오봉희,
이인재, 홍동희

1. 옛이야기의 중요성

옛이야기는 한 겨레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 겨레의 사상이 녹아 있는 이야기로 대부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옛이야기는 이 땅을 지켜온 민중의 뜻에 따라 전해졌다. 민중이 보기에 값진 것이면 끈질긴 생명의 힘으로 살아 남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수 천년, 수 백년 동안 끈질기게 살아 숨쉬는 옛이야기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옛이야기의 중요성을 옛이야기의 내용성과 함께 어우러질 수 이야기문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내용성으로 살펴본 옛이야기의 중요성

옛날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들려주던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던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력층이나 괴물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착하고 가난하여 설움 받던 민중이 끝에 복을 받는 이야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덕목을 주는 이야기, 그리고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는 이야기 등. 아이들은 이러한 이야기 속 세상으로 들어가 마음껏 상상하고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주인공과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간

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작게는 개인을 움직이게 하지만 크게는 전 민족, 전 인류를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옛이야기에는 민족의 사상과 감정,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우리 아이들은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 각 지방마다의 문화의 특색을 은연중에 배우면서 '민족성'이라는 조금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옛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 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나의 아이들과 딸, 손녀에게 들려주었다. 때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얻은 이야기를 보태어 들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옛이야기는 가족과 이웃과 크게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어제와 내일을 잇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옛이야기가 값지고 소중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② 어우러지는 이야기 문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문자라는 것이 생기고 기계가 발달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은 과거 몇 십 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 매체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돌이켜보건대 우리네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 것도 사실일 것이다. 물론 그 자체가 주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용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겠지만 말이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오락기 등 소위 '문명의 이기'라는 것들은 어른들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

적인 기계의 전달이라는 닫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의 대화가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 제공되고 요즘 아이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일 게다.

여기서 옛이야기가 주는 상대적이고 근본적인 중요성이 드러난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이 옛이야기라는 것은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다. 들려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끊임없는 눈빛 이야기와 호흡을 통해 때로는 듣는 사람이 말에 끼여들면서 교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공간 속에서는 '혼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림책을 들려줄 때 아이들이 그 상황이 집약되어 있는 그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옛이야기는 들려주는 사람의 표정과 말의 높낮이 숨소리를 통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야기의 상황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나름의 엄청난 상상력이 발동되는 것이다. 아마도 듣는 사람의 머리 속에 그려진 그림들은 백이면 백 모두 자신의 사고가 자유롭게 표현된 개성 있는 그림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옛이야기들이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서로 마주앉아 이야기를 대면문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없듯이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억지일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 함께 어우러진 그런 문화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이 옛이야기 들려주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외국의 좋은 그림책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외국의 애니메이션이나 몇대로 그려진 저급한 한국의 전래동화들도 아직까지 우리주변에 널려있기도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좋은 그림책에서 얻는 상상력과 감동에 비길 수 없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2. 형식적인 특징으로 본 옛이야기의 중요성

고리끼는 “우수한 민화나 전래동화 속에는 민족의 사상과 감정이 일관되어 있고 우리들 조상들의 아름다운 말이 넘쳐흐른다. 또한 위대한 예술적인 방법이 밑바닥을 꿰뚫고 있다.”라고 한다.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형식을 통해 예술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

▪ 일차원성 :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동물, 도깨비, 괴물 등을 만나도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놀라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자기와 같은 차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옛이야기는 현실세계와 초월적인 세계의 것들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들은 서로 접해 있으며 스스럼없이 서로 어울린다. 이는 많은 옛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중의 하나이다.

▪ 평면성 : 옛이야기는 공간적, 시간적 깊이 그리고 정신적 깊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종이 인형처럼 그 평면인 모양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육체적 고통도 없으며 감정의 세계도 갖지 않는다.

내면의 세계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몇 가지 행동의 가능성은 서로 다른 몇몇 도형적인 등장인물에게 분배되고 정신적인 거리감은 지리적인 거리감으로 서술된다. 이 모든 것은 한 줄로 죽 늘어서서 한 평면 위에 서술된다.

▪ 추상성 : 옛이야기는 고도로 추상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재, 나오는 사람, 줄거리, 사건들이 추상적인 양식으로 되어있다. 딱 맞아떨어지는 선물과 시점(그 때 마침), 등장인물의 성품이 묘사되지 않고 성격을 떼어 줄거리에 갖다 붙여 성품을 사건으로 읽을 수 있는 것, 고정된 공식을 사용하는 것(숫자 1,3,7 등을 주로 사용, 같은 말로 되풀이되는 묘사, 옛날에...잘살았다. 등), 정해진 법칙대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복잡한 묘사 대신 단순하게 가리키기만 하는 것 등은 모두 추상적인 양식에 속한다.

▪ 고립성 : 도형적 인물들은 내면세계도 주변환경도 없으며 선대나 후대와의 관계도 없고 시대와의 관계도 갖지 않고 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옛이야기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들도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인물은 배우지도 않고 경험도 쌓지 않으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이전의 사건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각각의 요소와 인물, 사건은 내적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손쉽게 결합할 수 있다. 물론 꼭 결합해야하는 까닭도 없다. 각각은 이야기 줄거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옛이야기는 모든 요소와 인물, 사건은 동일한 차원에서 고립된 채 추상적인 양식으로 한 평면 위에 투영된다. 이야기는 고립된 사건들로 이루어지며 고립된 사건은 추상적인 양식에 의해 자유로이 배열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옛이야기의 특성으로 살펴본 옛이야기

-중국임금이 된 머슴

주인이 열심히 일한 머슴을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자 머슴은 “나 나간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 난다.”라고 말이 헛 나갔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사또에게 고하고 사또는 임금에게 고하고, 이 소문은 그새 퍼져 중국임금에게까지 전해졌다. 중국 임금 앞에 불려나간 머슴은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산꼭대기로 죽을 각오로 올라간다. 산 속을 돌아다니던 머슴은 토끼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옷과 부채를 구하고 이 옷과 부채 덕으로 중국임금이 된다.

말을 하는 토끼와 이를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는 머슴은 토끼의 본질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건 전말에 관심을 갖는다. 그에겐 모든 것이 같은 차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옛이야기의 일차원성을 보여준다.

옛이야기가 갖는 특성인 평면성은 머슴의 자절이나 감정이 이야기 줄거리에 드러나는 부분과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네가 정말 난단 말이나?”라는 주인과 사또와 임금과 중국 임금의 질문에 “예, 날다 뿐입니까?” “oo가 날아가라고 해

도 날지 말지 한데 oo가 날아란다고 날겠습니까? 못 날지요”라고 위기를 모면해 간다. 이 사건들로 머슴의 재치와 대담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머슴은 토끼의 싸움을 통해 토끼가 가진 옷과 부채를 얻음으로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옛이야기는 주인공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어떤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사람의 지혜와 상관없이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진다. 여기서도 머슴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우연한 행운으로 과제를 해결한다. 머슴은 내적 깊이를 갖지 않는 그림도형으로 내면세계를 사건으로 평면에 투영하여 보여주고 외적 요인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옛이야기의 추상적인 양식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머슴과 주인과 사또, 두 임금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산에 대한 묘사도 없다. 사건의 전개상 필요에 의해 간단히 언급될 뿐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머슴은 죽기를 각오한 바로 그때 그 상황과 시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행운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토끼의 싸움과 옷과 부채이다. 이외에 추상적 양식을 사건과 말의 반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인과의 상황이 사또, 임금, 중국 임금과 대면했을 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며 “네가 정말 난단 말이나?” “예, 날다 뿐입니까?” “oo가 날아가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oo가 날아란다고 날겠습니까? 못 날지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8가지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고립되어 있지만 마지막 머슴이 중국임금이 되는 결론에 내적 필연성을 갖는다.

3. 옛이야기는 들려주는 것이다.

서정오선생님은 아이에게 옛이야기 들려주기까지의 어른의 역할을 책자에 썼다.(옛이야기 들려주기) 간단하게 쓰면 이야기 찾기- 좋은 이야기 고르기- 이야기 자료 손질하기- 살아있는 말로 들려주기이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데 우리 젊은 세대의 교사는 알고 있는 옛날이야기가 별로 없다. 첫 모임(옛이야기 공부 모임)에서 아는 이야기가 콩쥐팥쥐, 해님달님, 흑부리 영감 정도였다. 그것도 애니메이션 동화나 만화영화를 통해 얻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우선 옛날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해서 책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모았다. 한국 구전설화(평민사), 전래동화(창비사), 옛이야기 들려주기(보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현암사) 등에서 옛이야기를 읽었다. 그리고 옛이야기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하였다. 아동문학론, 어린이도서연구회 옛이야기분과 자료, 유럽의 민화(옛이야기 형식), 전래동화 1권(창비사) 등을 참고로 했다.

이렇게 모인 옛이야기는 그 동안 좋은 이야기만 모았다고 출판사에서 자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고르기 과정은 없었으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겼다. <옛이야기 들려주기>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고를 때 조심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썼다. 첫째, 전해오는 옛이야기의 모습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둘째,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생각이 백성들의 것인지 살펴야 한다. 셋째,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이야기를 골라야 한다. 넷째, 재미와 교훈이라는 두 개의 축이 튼튼한 이야기를

고르는 것이 좋다.

우리의 의문은 전래동화가 갖고 있는 봉건성,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관이 있지 않을까? 재미는 있지만 요행으로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등이었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사례로 보면 아이들은 분명히 옛이야기 듣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시대의 용어 '마님, 행랑채, 정승, 떠느리' 등의 낱선 단어에 대해 묻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모습은 없었다. 그것은 외국 그림책을 보여줬을 때 가끔 멍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책 자체로 아이들의 마음이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것일 게다.

그런데 옛이야기를 보면 여자아이는 항상 주인공이기보다는 주인공이 얻어 가는 보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정승집 딸) 정승 딸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인공이 보물을 얻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옛이야기가 갖는 특성 줄거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는 생략된다는 특성 때문이겠다. 또 그 당시 신분차별 사회에서 정승집 딸이란 신분의 변혁이니 얼마나 통쾌할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아이가 자꾸 듣다가 은연중에 그런 의식- 소극적인 여성에 젖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됐다.

지금까지 공부한 결론은 줄거리가 현실세계와 심하게 왜곡되었다면 들려주지 않으면 될 것이고, 잔가지의 경우 그것을 잘라내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해서 이야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옛이야기는 전승되는 문학이다. 이렇게 전승되면서 이야기는 변하게 되지 않을까? 말로 하는 이야기는 그때마다 시대

에 맞게 변형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줄기로 전승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읽어주기보다는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행으로 뜻밖의 행운이 주제인 책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별로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뜻밖의 행운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이 인생이라 할 때 뜻밖의 행운이 기쁨이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의 행동이 남을 속이는 경우(세형제 이야기- 평민사)는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말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었다. “왜 첫째 형은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듣고 아이와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이 옛이야기가 아이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경우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것으로 끝나지만(토론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주는 호랑이의 모습 등에 더 흥미를 갖는다.

우리는 처음 이야기를 읽고 외우려고 노력했다. 잘 외어지지 않으면 쪽지에 글을 써서 커닝을 하면서 들려주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짧고 더 안되었다. 또 사투리가 심한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마다 말할 때 개성이 있고 느낌이 다르므로 똑같은 말투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서툴지만 내 말로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미리 속에 그리며 하는 것이 가장 이야기를 잘하는 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만 몇 개 쓴 쪽지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교사가 그 이야기가 좋아서 그 속에 꼭 빠져들어야 이야기가 자기 것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하나 확인된 것은 그림책으

로 들려준 옛이야기와 말로 들려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아이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라 하면 아이들이마다 그림이 재미있고,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자기가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 그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려 한다. 그림책에 강한 인상을 받았기에 입으로만 들려주는 것에 식상해 하고, 또 그 그림에 집착한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림책으로 보여 주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상상하게 해 보고, 이야기 문학이 갖는 장점-들려주는 이와 듣는 이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 장점을 우선 살려보자는 것이다. 현시대가 영상시대이고, 또 그림을 통해 상상의 단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그림에 의해 이야기가 고정화되는 문제가 있음을 경계한다. 또 한 이야기가 여러 그림책 화가에 의해 그려져서 똑같은 이야기에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 옛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선생님! 옛날얘기 해주세요

“애들아, 옛날이야기 하나 해줄까?” 틈이 날 때 종종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나 좋아하며 들곤 하더니 요즘은 자기도 한번 해본다며 여태껏 들었던 얘기를 약간 패리디(?)해서 이야기하거나 완전 창작이야기(가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자기가 괴물이나 공룡을 무찔러서 가족을 구하는)를 하곤 한다.

난 어릴 적부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그것이 옛이야기 모임을 택하게 된 이유였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나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 문제는 ‘재미있는’ 인데,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어야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재미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옛이야기 모임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고르는 눈은 좀 생긴 것 같은데 재미난 이야기솜씨는 아직 자신이 없다. 그래도 이 얘기 저 얘기 짬뽕 되다가 슬그머니 “끝~”하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지만....

재미난 이야기 솜씨를 기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무조건 이야기를 많이 해볼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이야기가 많아야 하니까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한마디로 공부 좀 해야 한다.

요즘 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잠자기 전 옛이야기 몇 편을 읽고 잔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 앞에서 실습해보는 거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면 의기양양해지고 얘기를 재미없이 하는 것 같으면 좀 의기소침해지고...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 다음에 또 하는 거다. 이번엔 좀더 엄선을 해서 고른 재미있을 것 같은 얘기로 ...

아직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이 옆에 있으면 좀 어색해 하곤 하는데 얘기하다보면 나아져서 나중엔 어른들만 모아놓고도 천연덕스럽게 옛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이야기에 어울리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되었을 때 정말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 보파리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 옛날얘기 해주세요”

요즘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말이다.

옛날옛적에.....

“옛날 옛날에 ...”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나에게 집중된다. 그 예쁜 눈망울을 보며 나는 아이들의 이야기 주머니가 된다.

그림책 모임을 하던 중 같이 하던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이 중도에 해체되면서 옛이야기 모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주 편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모임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공부할 하다 보니 생각 외로 어려웠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구연으로만 옛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나 또한 옛이야기를 제대로 외우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들려주기 전에 그 이야기를 외워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좋은 그림책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 그림책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문화가 틀려 흥미를 주지 못하는 책들이 많다. 반면 우리의 옛이야기 그림책들은 의외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처음 들려준 옛이야기는 상상외로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아아, 그 이야기 알아요!”라는 한 아이의 반응 후 “나도 알아요.”라는 여기저기의 웅성거림을 다잡은 후 들려주어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준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은 그림책을 보는 재미와는 색다른 옛이야기 들려주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처음 “나 알아요”의 밋밋한 반응들이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랑 어느 부분이 틀려요?” “주인공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왜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만 더 들려줘요.” 등등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이야기 후 그림으로 표현하기라도 하면 아이들의 상상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림책에서 한가지의 그림으로만 볼 때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그림이 나온다. ‘땅속 나라의 도둑 퇴치’ 이야기를 들려준 후 한 아이가 “선생님 도둑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괴물 모습일까요?” 라고 물었다. 그 물음에 “글쎄, 어떤 모습일까?”라고 되묻고 돌아서서 어떤 도둑이 나올까 궁금해서 봤더니 사람 보다는 크고 괴물이라고도 하기 힘든 모습의 도둑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이만의 도둑 모습일 것이다.

중간 중간 나오는 옛날의 사물 이름이나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풍습, 어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우리 선조의 생활과 풍속, 그리고 삶의 지혜를 몸으로 받아들이는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재화되는 과정에서 너무 내용을 줄여 버렸거나 외국의 이야기를 본 따 재화하거나, 이야기의 내용 자체가 변해 있는 것들도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쥐팍쥐 이야기와 옛이야기 원전 ‘콩중이 팍중이’ 이야기를 보면 전달되는 부분이 많이 틀리다. 우리 옛이야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은 모여 앉기만 하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라며 나에게 모여지는 시선들이 옛이야기의 맛에 빠져들 때쯤이면 졸업을 해서 초등학교에 가게 된다. 비디오의 폭력성과 영상매체에 길들여져 조금은 삭막해져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옛날 할머니와 같은 포근함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옛이야기의 재미를 다음 세대에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또 새로 나의 반이 되는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 줄 생각이다.

◆ 재미있는 옛이야기-열한가지 ◆

해와 달이 된 남매

옛날에 이니 산골에 낸 하나이 살구 있드랬던데 집이 가난해서 놈에 집에 가서 방아 품두 팔구 배두 메주구 가구가 우 살구 있었다. 이 낸은 젓멍이 애기와 대엿으 난 아덜과 딸이 있던네 품팔레 갈적에는 집이다 두구 갔다.

하루는 고개 넘어 부재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방아품을 팔구 개떡을 얻어 개지구 밤늦게 집으루 돌아오는데 고개 하나를 넘으느꺼니 범이 나와서 길을 막구 그 개떡을 주문 안 잡아 먹겼갔다고 해서 개떡을 주었다. 범은 개떡을 먹구 어드메루 갔다. 고개를 또 넘으느꺼니 아까 그 범이 나와서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주문 안 잡아먹갔다고 해서 수건을 벗어 주었다. 범은 그 수건을 개지구 어데메로 가빠렀다.

고개를 또 넘으느꺼니 그 범이 나와서 저고리를 벗어 주문 안 잡아먹갔다고 했다. 낸이 저고리를 벗어주느꺼니 범은 받아 개지구 어데메루 가빠렀다. 또 한고개를 넘으느꺼니 범이 또 나타나서 초매를 벗어 주문 안 잡아먹갔다고 해서 초매를 벗어 주었다. 범은 초매를 받아 개지구 가빠렀다. 또 한 고개를 넘으느꺼니 범이 나와서 속곳을 벗어주문 안 잡아먹갔다고 해서 속곳을 벗어 주었다. 범은 속곳을 받아 가지구 갔다. 또 고개를 넘으느꺼니 범이 또나와서 팔을 떼어 주문 안잡아먹갔다고 했다. 낸이 팔을 끈어 주느꺼니 범은 팔을 개주고 갔다. 고개를 또 넘으느꺼니 범이 또 나와서 이 낸을 잡아먹었다.

범은 낸을 잡아먹구 낸의 수건을 쓰고 낸의 초메와 저고리를 입구 그 낸의 집에가서 “아가야, 오마니 왔다. 문열라” 구 했다. 목소리가 저 오마니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우리 오마니 목소리가 아니다 하멘 문을 열어 주디 앓으느끼니 범은 내레 민길을 오벤 바람을 많이 쐬서 목이 쉼서 그른다구 했다. 아덜은 “오마니 손 좀 만져보자. 문구녕으로 디리 밀어 보라” 구 했다. 범이 손을 드리밀어 주느끼니 맨제 보구 “우리 오마니 손은 보들보들한데 이 손은 깔깔하다. 오마니 아니다.” 구 했다. 범은 “내레 부재집에서 베를 메주느라구 손에 풀이 말라 붙어서 깔깔하다. 날래 문 열라” 구 과됐다. 아덜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주느끼니 범은 방으로 들어와 언나 젓 먹이갔다고 언나를 안구서 웃군에 가서 잡아먹었다. 언나를 먹느라고 오뚝오뚝 소리가 났다. 아덜은 “엄메야, 머 먹어” 하느끼니 부재집에서 콩닭는거 먹넌다 했다. 나 좀 달라 하느끼니 범은 언나 손가락을 던네 주었다. 아덜이 이걸 보구 더거넌 오마니 아니구 범이같다 하구 도망할 생각으로 “엄메야, 나 똥 매리워” 했다. 거기서 누워라 하느끼니 쿠린네 나서 안된다 했다. 고름 뜨락에 누어라, 밟으론 어카갔네, 고름 재통¹⁾에 가 누어라. 그래서 아덜은 밖으루 나와서 멀리 똥서 움물역²⁾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아이덜이 떠³⁾ 누레 나가더니 오디 안해서 범은 아덜을 얻어⁴⁾ 보갔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얻어 보다가 움물 역에 와서 움물안을 들다봤다. 움물안에 있어서 “야덜아 이리 나오나, 날래 나오나” 하멘 소리됐다. 그 아덜이 모양이 우스워서 아덜이 히히하고 웃었다. 범은 웃음소리를 듣고 나무를 테다보구 “너들 어드렇게 거기 올라가 있네?” 했다. 사내아레 앞집이서 기름을 얻어다가 나무에 발르구 올라 왔다고 했다. 범

은 앞집이 가서 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발르구 올라갈라넌네 미끄러워서 올라 갈 수가 없었다. 범은 “너덜 어드렇게 해서 올라 갔네?” 다시 물으느끼니 이린 체네레 건너 집이서 도구를 얻어다가 그 걸루 나무를 띄구 올라왔다고 말했다. 범은 건너집이 가서 도구를 얻어다 나무를 띄으벤 올라 왔다. 범이 이야달 있던 데까지 거이거이 올라오게 되느끼니 아이덜은 급해서 하늘에다 대구 “하누님, 우리를 살릴라문 새 동애줄을 내리 주구 죽일라문 썩은 동애줄을 내려 주시오” 하구 빌었다. 새 동애줄이 내려와서 아덜은 이 줄을 타고 하늘루 올라갔다.

범이 나무에 올라가 보느끼니 아덜은 이 줄을 타구 하늘루 올라가서 범두 하늘에다 대구 빌었다. “하느님, 나를 살리갔으문 새 줄을 내리 보내주구 죽일라문 썩은 줄을 내리시오” 하구 빌었다. 썩은 줄이 내리와서 범은 이거를 타구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데서 아래루 떨어됐다. 범이 떨어진 곳에는 쉬시대를 비어낸 쉬시끄덩이가 있었너데 범은 쉬시끄덩이에 찢려서 피를 내구 죽었다. 그래서 쉬시대에는 지금두 범에 피가 묻데 있다고 한다.

아덜은 하늘에 올라가서 사내아이는 달이 되구 체네는 해가 됐다고 한다.

(이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오래비는 해가 되구 누이는 달이 됐다. 그런데 누이는 밤에 다니기가 미쉽다 하멘 해가 돼서 낮에 다니구 싶다구 했다. 오래비는 달이 돼서 밤에 다니구 누이는 해가 돼서 낮에 다니게 됐넌데 오늘날 달 보구 해오래비라 하는 거는 이 때문이라구 한다.)

1)변소 2)우물가 3)똥 4)찾아

방귀 안 끼는 사람 있나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도 있나? 없지.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끼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끼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이랬다지 뭐냐.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밤에 방귀를 끼었어.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끼었던 말아야. 그래놓고 나이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 신랑이라는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져. 웬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 번 흘리고 넘어갈 일 아니야? 그런데 이놈의 신랑은 속알머리가 뱅탱이 콧구멍만도 못 한지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 버리네. 첫날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똥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지. 저희 아버지가 웃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지. 아,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할 것 아니야?

어쨌든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났지. 그만 일로 빠뜨려져서 도망가 버린 신랑이 께쌔하기도 하지마는 첫 날 밤에 방귀끼고 소박맏았다는 소문이라도 나 봐. 남우세스러운 일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신랑집에 보내 가지고 참 백배사죄를 했어.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

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 가시오.”

이렇게 밋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어. 거, 옛날에는 삼일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 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단 말이야. 그래서 신랑이 사흘 밤을 잤는데, 아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방귀를 또 끼었내그려. 색시 댄에는 점때 한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라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이거든. 참다 참다 아주 대판으로 끼어 놓았던 말이야. 이래 놓으니 신랑이 뭐 가만히 있겠나. 안 그래도 속이 뱅탱이 콧구멍처럼 좁아터진 위인이 두 번씩이나 실수를 했으니 그냥 넘어 갈 리가 없지.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뺐버렸어.

두 번이나 내뺐 놈을 또 빌러 찾아가기도 무엇하고, 빌러 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위인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는 그만 두 손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어.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지.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색시때가 불러오더니 딸이 차서 아이를 낳았어. 참 딱두꺼비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던 말이야.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십 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보고 애비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리고 물겠지.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뭣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어기 바다 속에 콩하고 었드려 있는 뱀뱀이가 너희 아버지다.”

했지. 방귀 좀 끼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나.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데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데기가 뭐예요?”

이런단 말이야. 이제는 아이에게 숨길 수도 없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 줬어. 첫날밤에 방귀 끼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방귀를 또 끼어서 아주 가버렸다고 말이지.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기에 사는 동네와 이름을 대줬어.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어머니더러 오이씨를 한 봉지 구해 달라고 그래. 오이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오이씨를 한 봉지 구해다 줬어.

아이는 오이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어. 가서 제 아버지가 사는 집앞을 왔다갔다하면서

“오이씨 사려, 오이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어. 그랬더니 집안에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씨가 어디 있단 말이나?”

하고 막 나무라겠지. 그래서,

“이 오이씨는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지요.”

했더니 남자가 허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하겠지.

“예,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밤에 방귀 끼었다고 소박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들게 마련이지.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거든.

“그래, 첫날밤에 방귀 끼었다고 소박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이 어떻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럴 게 아니야?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어.

“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단다. 뭐 요새야 이런 속 좁은 남자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더러 이런 일도 있었다는 군.

단동

챙밀당시 하나이 당나구에다 챙밀을 한집 신구서 팔레 가드랬는데 가다가 얼음판에서 당나구레 나가 자빠데서 고만 챙밀을 다 쏘아터거덩. 그레 할수레 있나. 챙밀당시는 었드레서 그 쏘아딘 챙밀을 다 훅아먹엇디. 그리구 좀 있다가 방구를 꿰구 방구를 먹어보는꺼니 달콤하거덩. 야 이거 동은 수레 났다. 이거를 팔문 돈 벌갸다하구서 방구 팔레 나갸단 말이야.

어떤 말에 가서 “단 방구 사시요 단 방구사시요” 하멘 돌아다니느꺼니 말 사람덜이 나와서 “단 방구레 머이가 단 방구레 머이가” 하멘 달레든단 말이야. “단 방구레 기맥힌 거 우다. 떡에다 발라 먹던디 띄어 먹어문 기맥히디요. 날래 집이 가서 띄이나 많이 테놓구 기다리우다”한단 말이다. 기러느꺼니 말 사람덜은 제각기 집이루 가서 떡을 테놓구 었엿디. 챙밀당시는 집집마당 돌아가멘 떡에다 대구 방구를 뽕뽕 꿰냈단 말이야. 말 사람덜이 먹어 보느꺼니 참으루 달구 맛이 있거덩. 기래서 말 사람덜은 챙밀당시한테 돈을 수타 많이 주엇어.

기래서 이 챙밀당시는 갑재기 잘살게 났는데 이런 말들은 이웃 사람 하나이 이 사람한테 와서 어드렇게 해서 갑재기 돈을 많이 벌었능가 하구 물어서, 이레이레해서 돈을 벌었다구 사실대루 말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구 자기두 단 방구 팔갸다 하구 나구에다 챙밀을 한집 신구 가다가 얼음판에 가게 났는데 당나구레 넘어디디 았해서 뒷다리를 테서 우덩 넘으뜨리게 해게지구 쏘다딘 챙밀을 었데서다 훅아 먹구 그리구서 방구를 꿰서 먹어보느꺼니 달거덩.

됐다 하구서리 말에 가서 단 방구 사시요 하멘 돌아다녔단 말이다. 기랬더니 이 말 사람들이 너께 왔던 단 방구당시레도 왔다 하멘 떡을 테 놓구 저마당 맨제 저 집이 와서 떡에다 방구를 꿰달라구 야단 법석을 해서 이거 큰돈 벌갸다구 신이 나서 집집마당 돌아가멘 방구를 꿰 주는데 고만에 방구는 나오디 았구 떠레 나와서 이놈으 새끼 방구 꿰달랬디 떠싸 달랬네? 하멘 때리구 티구해서 이 사람은 돈두 못 벌구 매만 죽두룩 맛앗다누만.

이상한 나뭇잎

옛적으 소금장시 하나가 소금을 팔로 이리저리 탕기다가 어떤 고개에서 쉬고 있었다. 그 고개에는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밑이 쉬고 있니랑게 버마재비(사마귀)가 한 마리 기어나오더니 나무서 이파리 하나를 따서 지 이마에다 붙이고 배미 옆으로 가더니 배미를 잡아먹었다. 버마재비가 그 잎사구를 이마에다 붙이게 안 뵈었더니 아마 배미는 버마재비가 오는 것이 안 뵈여서 쥔해맥힌 모양이지. 버마재비가 그 잎사구를 떨어티리게 버마재비가 뵈었다. 소금장시는 이것을 보고 그 이파리는 이마에다 붙이면 안 뵈던 것인가부다 허고 그 이파리를 좇아서 주머니 속에다 잘 넣어서 잘 간수했다.

소금장시는 저그 동네에 와서 저그 집에 들어갈 적에 주머니서 그 이파리를 끄내서 이마에다 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갔더니 저그 마누래랑 아덜덜이랑 본치만치허고 인사도 안했다. 소금장시는 내가 왔는디도 왜 인사도 앓고 아년 치도 앓너냐 형게 마누래는 “야덜아, 너가부지 소리가 나넌디 너가부지가 어디 지시냐?” 험서 두리번두리번 험서 챜고 있었다. 소금장시는 그제사 이마에서 나무 이파리를 띠여냉게 열레 아버지가 언제 와지시네 험서 아덜덜이 나와서 인사했다. 소금장시는 또 그 이파리를 이마에다 살재기 붙였더니 마누래랑 아덜덜은 아버지가 인제 막 여그 지셨넌디 그새 어디 가셨을까 험서 챜고 있었다. 소금장시는 이 나뭇잎은 사람이 안 뵈게 허년 아주 귀헌 보물이구나 허고 생각하고 비단현검에다 싸서 주머니다 넣어두고 산에 갈 적에는 그 잎사귀를 이마에다 붙이고 가서 노루며 튀깁이며 꿩이며 잡

이왔다. 노루도 튀깁이도 꿩도 산에 사는 점성들이 안 뵈여서 잘 쥔해넌 모양이었다. 쌀이나 옷감이나 필요허게 되면 이 나뭇잎사귀를 이마에다 붙이고 저자(가게)에 나가서 집이 왔넌디 집이와도 전방 주인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서 이 사람은 소금장시도 그만두고 가만히 집에서 편안히 사넌디도 쌀밥과 피기국을 먹고 잘 지냈다.

이웃이 사람 하나가 이 사람헌티 와서 자네는 소금장시도 앓넌디 어찌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냐고 물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소금 팔로 갔다가 압디 고개에서 쉬고 있넌디 그 옆으 큰 나무에 버마재비가 나와서 나뭇잎 하나 따서 이마에다 붙이고 배미를 잡아먹고 그 잎사귀를 떨어트려서 이 잎사귀를 이마에 붙이면 사람 눈에 안 뵈넌 잎사귀가부다 허고 좇아서 집에 와서 이마에다 붙이고 뵈더니 마누라랑 아덜덜이랑 내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 그리서 이 잎사귀는 이마에다 붙이면 아무도 못 보는 이상한 잎사귀가부다 하고 이 잎사귀를 이마에다 붙이고 산에 갔더니 노루며 꿩이며 튀깁이며 나를 못 보넌지 잘 쥔해네. 그리고 쌀이고 옷감이고 필요허면 저자에 나가서 쌀이고 옷감이고 가져와도 저자 주인은 모르고 가만히 있네. 그리서 장사도 안 허고 놀고 잘 먹고 잘 지내네” 허고 말했다.

이웃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런 이상헌 나뭇잎을 얻이보졌다고 소금을 한 짐 지고 그 산으 고개에 가서 그 나무 밑이서 쉬고 있었다. 버마재비가 나올가 허고 지달리왔넌디 암만 지달리봐도 버마재비는 나오지 안했다. 해는 저물어가고 저녁때가 되어갔다. 이 사람은 더 지달리 수가 없어서 저 나무 잎사귀 가운데에는 이마에 붙이면 안 뵈는 잎사귀가 있일티지 허고 그 잎사를 챜어내보졌다 허고 그 나무에 올라

가서 그 나무 잎사구를 작대기로 두들려서 다 따각고 소금
섬에 들은 소금을 다 꺼내서 땅에다 쏟아버리고 소금섬에다
나무 잎사구를 다 집어너각고 집이로 왔다.

마누래보고 좋은 보물을 쫓일랑게 얼릉 저녁히 먹고 함께
보물을 찾자고 했다. 마누래는 영문도 모르고 서방이 허자는
대로 저녁밥을 얼릉 허먹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소
금섬에 잔뜩 담은 나뭇잎을 방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방
안이다 쏟아놓고 마누래보고 이제부터 생전 놀고 먹게 될
보물을 쫓일랑게 잘 봤다가 내가 묻는 대로 잘 대답하라고
허고서넌 나무 이파리를 하나 집어각고 지 이마에다 붙이고
지 모십이 빙가(보이는가)허고 물었다. 마누래가 봉게 서방
모십이 그대로 빙게 빈다고 했다. 이 사람은 그 나무 이파리
를 제쳐놓고 다른 나무 이파리를 이마이다. 붙이고 빙가, 했
다. 빙게 비여, 했다. 그 이파리를 제쳐놓고 또 이파리를 집
어서 이때다 붙이고 빙가, 했다. 빈당게 또 다른 이파리를
붙이고 빙가, 했다. 이렇게 이파를 붙여 보고 빙가 허면 각
시는 비여, 했다. 이렇게 밤새도록 내우간이 빙가, 비여, 빙
가, 비여, 빙가, 비여 험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허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똑같은 소리만 빙가, 비여, 빙가, 비여 허게
뵈게 마누래는 지루허기도 허고 귀찮기도 허고 또 졸음도
오고 허서 안 빈다고 허면 차꼬 빙가 허고 물을 짓 갈아서
안 빈다고 했다. 마누래는 하품을 험서 정말 안 비여 했다.

“안 빙게 안 빈다고 허넌디 왜 차꼬 물어싸? 아이고 졸려
죽겠네” 험서 팩 드러누었다. 서방은 그 말을 듣고 보물 잎
사구를 인제야 쫓었다. 허고 그 잎사구를 잘 싸두었다. 그러
고 다른 잎사구를 모다 소금섬에다 집어넴다.

이 사람은 다음날 그 잎사구를 이마에다 붙이고 제자에

들어가서 그 제자에 있던 옷감을 들고 나왔다. 가게 쥐인이
보고 아 어떤 놈이 대낮에 남으 가게에 들어와서 옷감을 자
저가냥서 뺏고 내쫓었다. 이 사람은 그랬으면 그만둘 일이지
만 가게에 들어가서 돈 켜서 돈을 훔썬 꺼내각고 나갈라고
형께 제자 쥐인은 아 이 녀석이 어떤 놈이기에 대낮에 남으
돈을 막 훔쳐가나 이리서 달리들어서 반죽음혈 만큼 두들겨
서 내쫓었다.

콩쥐 팥쥐

옛날에 콩쥐 팥쥐라는 두 처녀가 있었다. 콩쥐는 전치의 딸이고 팥쥐는 후치가 데리고 온 이부딸이다.

하루는 후치가 콩쥐한테는 나무호미와 삼 년 묵은 겨밥에 삼 년 묵은 된장을 싸 주며 자갈이 많은 묵정밭에 김을 매라 하고 팥쥐에게는 쇠호미와 팥밥에 고기 반찬을 싸 주며 사랑이 밭에 김을 매라고 했다.

콩쥐는 점심밥으로 싸가지고 온 겨밥과 된장을 나무가지 위에 올려 놓고 김을 매는데 나무호미로 매는데 아무리 매도 잘 매지지 않고 힘이 들어 고생만 하는데 가마구떼가 와서 나무뿔 놔 둔 겨밥을 다 먹었다. 그래서 콩쥐는 밥도 못 먹어 배가 고프고 힘도 들고 해서 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랬더니 암소 한 마리가 내려와서 왜 우느냐고 물었다. 콩쥐는 나무호미로 자갈밭을 매는데 힘도 들고 점심 밥을 가마구떼가 다 먹어서 배가 고파서 운다고 했다. 그랬더니 암소는 저 아래 있는 개울에 가서 아랫탕에서 발을 씻고 중탕에서 목욕하구 상탕에서 머리를 감고 와서 명지수건으로 손을 말아 감고 내 밀구녕에 디리밀어 보라고 했다. 그래서 콩쥐는 암소가 하라는 대로 개울에 내려가사 하탕에서 발을 씻고 중탕에서 목욕하고 상탕에서 머리감고 명지수건으로 손을 감고 소의 밀구녕에 디리밀어 넣어 봤더니 떡이며 고기며 과자며 많이 나왔다. 콩쥐는 그 떡과 고기와 과자를 실컷 먹고 나머지를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팥쥐는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콩쥐는 떡이랑 고기랑 사탕이랑 즐거이니 문 좀 열으라고 했다. 콩쥐는 문구녕으로 사탕을 하나 디리밀었다. 팥쥐는

그것을 받아먹고 야 지금 준 것은 화루에서 떠러트렸으니 또 하나 달라고 했다. 또 하나 넣어 주니까 이번에는 요강에 빠트렸으니 또 하나 달라고 했다. 또 하나 넣어 주니까 이번에는 머 어쨌다 어쨌다 하면서 자꾸 넣어달라 해가지구 사탕이며 떡이며 고기며 다 뺏어가지구서 그제서야 문을 열러 주었다. 콩쥐가 방에 들어가서 사탕이랑 떡이랑 고기를 노파 먹자 하니까 팥쥐는 너는 배고플터이니 밥 먼저 먹으라 했다. 콩쥐는 밥을 찾아보는데 밥이 없어서 밥이 어데 있느냐고 물었다. 팥쥐는 가마솔 안에 있다고 했다. 가마솔 안을 들쳐봤는데 밥은 없었다. 없다고 하니까 살간에 있다고 했다. 살간을 봐도 없었다. 없다고 하니까 장간에 있다고 했다. 장간에서 찾아 보았는데 거기에도 밥은 없었다. 없다고 하니까 아무데 있다 아무데 있다 하며 거짓말만 했다. 그동안 팥쥐는 저어 어미와 그 사탕이며 떡이며, 고기를 다 먹어 버렸다. 그래서 콩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다.

훗어머니는 콩쥐보고 그 사탕이랑 고기랑 떡이랑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다. 콩쥐는 자갈밭을 나무호미로 김을 매고 있었더니 하늘서 암소가 내려와서 주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훗어머니는 다음날 팥쥐에게 나무호미와 겨밥을 싸주고 자갈밭에 김을 매라하고 콩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사랑이밭을 매라고 했다.

팥쥐는 자갈밭은 매지도 않고 뽕뽕 울고 있었다.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와서 왜 우느냐고 물었다. 팥쥐는 김 매기에 힘이 들고 배가 고파서 운다고 했다. 그랬더니 암소는 저 아래 있는 개울에 가서 아랫탕에서 발을 씻고 중탕에서 목욕하구 상탕에서 머리를 감고 와서 명지수건으로 손을 말아 감고 내 밀구녕에 디리밀어 보라고 했다. 팥쥐는 암소가 말한 대

로 개울에 내려가사 하탕에서 발을 씻고 중탕에서 목욕하고 상탕에서 머리감고 명지수건으로 손을 감고 암소의 밑구렁에 두 손을 넣고 그 안에 있던 사탕이며 떡이며 고기를 한 우큼 잔득 쥐고 손을 빨라고 하는데 잘 빠지지 안했다 암소는 다라뛰기 시작했다. 팔쥐는 손을 빼지 못하고 소의 뒤에 매달려서 끌려다녔다. 소는 발틀로 논틀로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사뭇 뛰어다녔다. 그래서 팔쥐는 온몸이 다치고 굴키고 켜여지고 해서 피투성이가 됐다. 이 암소라는 것은 콩쥐 어머니가 죽은 녀이라고 한다

팔쥐는 온몸에서 피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입은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털너털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팔쥐어머니는 멀리서 제 딸이 온몸이 벌개 가지고 오는 것을 먼 빛으로 보고 우리 팔쥐는 고혼 옷까지 얻어입고 온다고 조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콩쥐가 거짓말을 한 탓으로 이렇게 됐다고 콩쥐를 마구 두들겨 패고 야단치고 밥도 먹이지 안했다.

그후 어느날 훗어머니는 콩쥐한테는 흰 북과 콩 볶은 것을 주고 팔쥐한테는 새 북과 팥밥을 주면서 둘이 배를 짜는데 주가 더 많이 짜는가 내기해 보라고 했다. 콩쥐는 볶은 콩을 한입에 많이 집어넣어 오물오물 먹으면서 쉬지 않고 배를 짜서 많이 찼는데 팔쥐는 찰밥을 떠어 먹으면서 배를 짜는데 찰밥이 손에 붙어 찢덕찢덕해서 북 놀리기가 더디어서 배를 얼마 짜지 못했다. 훗어머니는 팔쥐가 더 많이 짜고 콩쥐가 덜 찼을 줄 알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팔쥐가 적게 짜고 콩쥐가 더 많이 짜서 이것은 찰밥을 먹으면서 짜니라고 손이 찢겨찢겨 해서 그랬을 것이라 하고 다음에는 콩쥐한테

는 찰밥을 해주고 팔쥐한테는 콩을 볶아 주어 배를 짜게 했다.

콩쥐는 물을 떠다 놓고 물에 손을 적셔서 찰밥을 떼어서 입에 넣어 먹으면서 배를 찢기 때문에 많이 찼 수가 있었다. 그런데 팔쥐는 콩을 한 알 한 알씩 집어 먹으면서 짜니라고 배를 많이 짜지 못했다. 훗어머니는 이렇게 해도 팔쥐가 지고 저렇게 해도 팔쥐가 지고 해서 그만 화가 나고 더욱더 콩쥐를 미워했다.

그후 어느날 먼데 있는 일가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 훗어머니는 팔쥐를 데리고 잔치집 구경을 가겠다고 했다. 콩쥐도 가겠다고 하니 훗어머니는 네가 올려면 아흔간 방을 다 말끔히 쓸고닦고 아홉방 아궁이에 재를 다 닦아내고 밑없는 독 아홉에 물을 가득 길어 붓고 벼 아홉 섬을 다 찢어는 담에 오라구 하고 저들끼리 갔다.

콩쥐는 아홉간 방을 다 쓸고 닦고 아홉방 아궁이에 재를 다 닦아냈다. 이런 일을 다 하니라니까 힘이 들고 지쳐서 울고 있었다. 울고 있던데 참새들이 한떼 몰려와서 마당에 널어논 벼를 까먹고 있었다. 콩쥐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래여 꿰이꿰이 하고 새를 쫓았다. 새들은 다 날아갔는데 나라간 뒤에 보니까 벼 아홉섬은 벼껍질은 날아가고 쌀알이 음시란히 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벼 아홉 섬을 찢어서 놀게 됐다. 그런 뒤에 어데서 왔던디 두꺼비 아홉 마리가 와서 독 밑에가 엎디고 물을 길러다 부라고 했다. 콩쥐는 큰 독마다 물을 한 동이씩 부면 가득 찼다.

훗어머니가 시킨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잔치집으로 갈라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울고 있었다. 그랬더니 암소가 내레와서 고혼 비단 옷과 이쁜 갓신 한 켤레를 주었다. 콩쥐는

그 비단 옷을 비고 이쁜 갓신을 신고 잔치집에 가서 구경하고 있었다. 구경하고 있는데 훗어머니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야단마질가봐 콩쥐는 거기서 뛰어서 집으로 도망쳤다. 도망쳐 오다가 그만 신었던 신 한 짝을 잃어버렸다.

그일이 있는 후에 감사가 이 골을 지나가다가 이 신 한 짝을 보고서 이 신작이 하고 고호니까 이 신 임자는 잘 생긴 여자일 것이라 생각하고 신 임자를 찾았다. 팔쥐가 나와서 그 신은 제 신이요 했다. 감사가 신겨보니 팔쥐의 발은 너무 커서 맞지 않았다. 그래도 팔쥐는 억지로 신다가 발이 상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다음에는 훗어머니가 나서서 그 신은 제 신이라고 하면서 신어 보는데 이것도 맞지 안해서 감사는 감사를 속이는 년 이라고 하고 매를 때렸다. 감사는 이 여자 저 여자 신겨 봤는데 아무도 그 신에 맞는 여자가 없었다. 나중에 콩쥐가 남아서 감사는 그 신을 콩쥐한테 신겨 봤다. 신겨 보니까 콩쥐 발에 딱 맞았다. 감사는 조와라 하고 콩쥐를 데려다 마누라를 삼았다.

이렇게 해서 콩쥐는 감사의 마누라가 돼서 잘 사는 데 하루는 감사가 불일이 있어서 먼 길을 떠났다. 감사가 떠나간 후에 얼마 안돼서 팔쥐가 찾아 왔다. 찾아와서는 콩쥐를 보더니마는 “야, 콩쥐야 네 목에 웬 때가 그렇게 많이 끼 있나? 감사가 보면 더럽다고 내쫓겠다. 오늘 날도 더웁고 하니 때도 배끼고 목욕도 하러 나가지. 자 어서 가자.” 하면서 팔쥐는 콩쥐의 팔을 끌고 연못이 있는 데까지 왔다. 연못까지 와서는 팔쥐는 콩쥐보고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돌이는 옷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갔다. 연못에 들어가서는 더 깊은 데로 가자 더 깊은 데로 가자 하면서 팔쥐는 콩쥐를 끌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물이 목에까지 닿는데 와서는 팔

쥐는 콩쥐를 완각 떠밀어서 죽게 했다. 그리고 팔쥐는 나와서 콩쥐 옷을 입고 콩쥐처럼 하고 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팔쥐는 얼굴이 검고 얹고 목도 길었다. 감사가 돌아와서 팔쥐를 콩쥐로 알고 어째서 얼굴이 검어졌냐고 물었다. 팔쥐는 감사님이 안 계셔서 세수를 안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감사는 또 왜 얼굴이 얹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감사님이 돌아오시기에 얼른 마중나가다가 콩명석에 너머져서 그렇게 됐다고 했다. 감사는 왜 목이 길어졌느냐고 물었다. 감사님이 오시는 걸 보려고 날마담 장밖을 내다보느라고 목이 길게 됐다고 했다. 감사는 그런가 하고 그리고 지내는데 하루는 감사가 하인을 데리고 연못 있는 데로 나가 봤더니 연못 가운데 함박꽃이 곱게 피어 있었다. 하인이 연못에 들어가서 함박꽃을 꺾는데 아무리 꺾어도 꺾어지지 않았다. 감사가 연못에 들어가서 꺾으니깐 쉬웁게 꺾어졌다. 감사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나와서 들며날며 보겠다고 감사 방문 앞에 매달았다. 감사가 들며날며 불적에는 함박꽃은 곱게 활짝 피는데 팔쥐가 들랑날랑 할 적에는 꽃은 시들고 팔쥐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얼굴도 할퀴고 했다. 팔쥐는 그람 화가 나서 이 꽃을 벼아궁에 집어 넣고 불을 때버렸다.

이웃에 할머니가 하나 살고 있었다. 이 할머니가 하루는 감사네 집으로 불을 얻으러 와서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왔다. 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보니 잿속에 웬 이쁜 구슬이 있었다. 이 구슬을 좇아서 농안에다 넣어 두었다.

그 후부터는 이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면 하얀 쌀밥에 걸게 차린 밥상이 차려져서 놓여 있었다. 이상한 일도 있다 하고 하루는 숨어서 보니까 농안에 두어둔 구슬

이 고혼 색시가 돼서 나와서 밥을 한상 잘 차려 놓았다. 할 머니는 얼른 나와서 그 색시를 붙들고 웬 색시냐고 물었다.

색시는 자기는 콩쥐인데 팔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감사를 한 번 칭해다가 음식대접을 하고싶다고 했다. 할 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루는 감사를 청했다.

감사가 와서 음식상을 받고 보니 저까락이 짹짹하고 또 거꾸로 놓여 있었다. 감사는 어째서 저까락이 짹짹하고 거꾸로 놔느냐고 물었다. 그때 농안에서 콩쥐가 나와서 “감사님은 저까락이 짹짹하고 거꾸로 놓여 있는 것은 아시면서 마누라가 바뀌고 제대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십니까?”하고 말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그제야 깨닫고 팔쥐가 콩쥐 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콩쥐를 괴롭히기만 한 팔쥐와 팔쥐 어머니를 잡아다가 켜고 콩쥐하고 잘 살었다고 한다.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금강산 호랑이

옛날에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처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지나게 됐어. 마침냇가에서 두 사람이 자라 한 마리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서 가 봤지. 가 보니 두 사람이 같이 자라를 잡아서 그걸 칼로 반씩 잘라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야.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죄 없이 몸뚱이가 두 쪽 나는 것을 차마 못 보겠어서 그 자라를 두냥 주고 샀어. 그리고 도로 냇물에 놓아 줬지.

그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뽕 불더니 미리에 쓴 것이 뿔 날아가 버리네.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뿔 날아가고,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뿔 날아가고, 이래서 천방 지방 자꾸 따라갔지. 따라가다 보니 어디서 술개가 날아와서 갓을 낚아채 가지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젊은이는 갓을 찾으려고 그 술개를 따라갔어. 자꾸자꾸 따라가다 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됐구나.

금강산에 당도해서 갓을 찾는데, 일만이천봉 구십구 암자라는 너른 금강산에서 어찌 갓을 찾는단 말이야.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 그래서 한참 찾자다 그만두고,

‘에라, 이왕에 금강산까지 왔으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어. 산도 보고 절도 보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산중에 집 한 채 있어. 그 집에 들어가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풀뿌리를 다듬고 있어.

“젊은이는 어인 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갓을 채 간 술개를 따라오다가 금강산까지 오게

되어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돌아다닌다 했지. 그랬더니,
“금강산 구경도 좋지마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하거든.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왕에 온 것이니
구경을 더 하고 가겠다고 그 집을 나섰어.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구경을 하더라도 잘 지은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젊
은 색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게.”

이런단 말이야.

젊은이는 노인의 집을 나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어. 그리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산중에 불
이 환한 집이 보이거든. 불빛을 따라가 보니 참 잘 지은 기
와집이 있어. 아까 허연 노인이 잘 지은 기와집에 가지 말라
고 하던 말이 떠올랐지만 달리 갈 데도 없어서 거기에 들어
갔어.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웬 젊은 색시가 배를 짜고 있
더라. 산중에서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려고 왔
다 하니 공손하게 맞아들이고 저녁 상을 차려 줬.

그런데 저녁 상을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이상해. 밥을 먹으
려고 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사람 손톱 발톱이 나오고 국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국을 뜨면 사람 머리카락이 나와. 그러
고 보니 아까 노인이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오르거든. 그래서 젊은이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죄다 소매 속에 넣었어.

저녁 상을 물리고 앉아 있으니 밖에서 속속 칼 가는 소리
가 들리지 뭐야.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색시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치마 끝으로 하얀 꼬리 뼈죽 아홉 개가 나와
있어.

‘이크, 내가 구미호 굴에 들어왔구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잠시
뒤에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절밥을 먹고 기절을 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을 했
나.”

이리저런. 래서 일부러 기절한 척하고 드러누워 있었어.
그랬더니 문을 열고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들어와. 들어와
서 젊은이를 흔들어서 보더니 꿈쩍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아흔아홉개 간을 빼먹었으니 이제 백 개째 간
을 빼먹게 됐구나.”

이러면서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가. 젊은이는 그 틈에 벌
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을 쳤지. 한밤중이라 캄캄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엎어지며 자빠지며 정신없이 도망갔어.
뒤에서는 여우가,

“이놈, 너를 끝까지 따라가 네 식구들까지 몰살하리라.”
하고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정신이 온전하게 불
어 있을리 있나. 건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렸지.

얼마나 달렸는지 날이 회부영게 새는데 저만치 어제 갔던
노인의 집이 보이더라. 거기에 들어가서 노인에게 자
초지종을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노인이,

“그 구미호는 둔갑도 잘 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당하기
힘드네. 자네가 살 길은 자네한테 달렸네. 지금까지 죽을 목
숨을 살려 준 일이 없는가?”

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목숨을 구해 준 일은 없단 말
이야.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했지.

“반드시 사람 목숨이 아니라도 죽을 목숨 살린 일이 없단
말인가?”

그제야 자라를 살려 준 일이 생각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노인이 종이에다 글자를 몇 자 써 주면서 그 자라 구해 준 곳에 가서 종이를 던지라고 해.

젊은이가 종이를 받아 쥐고 자라 구해 준 곳까지 가서 종이를 던지니, 냇물이 썩 갈라지면서 백마를 탄 초립둥이가 나타나.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젊은이가 살려 준 자라가 용왕의 외동아들이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왔다 하니 알겠습니다. 하고 도로 물 속으로 들어가. 그러더니 조금 뒤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것을 던지십시오.”

하고 그 칼을 주거든. 칼을 받아 허리춤에 차고 도로 금강산으로 들어갔어. 가 보니 노인이 살던 집에서 노인과 구미호가 한창 싸움이 붙어서 불꽃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해. 칼을 구미호에게 던졌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광하고 쳐서 구미호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었어.

뒤에 들으니 그 노인은 금강산 산신령이라네. 그리고 젊은이는 그 뒤로 금강산 구경 다하고 집에 돌아가 잘 살았는데, 이저께는 우리 집에 밥 얻어먹으러 와서 한 그릇 쥐 보냈지.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더라. 한 할아버지는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한 할아버지는 만석꾼 부자로 살아. 가난뱅이 할아버지는 왜 가난하고 하니, 무엇이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남에게 다 쥐서 그렇지. 쌀이 생기면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옷이 생기면 저보다 불쌍한 사람에게 준단말이야. 이러니 뭐 재산을 모을 수 있나. 그런데 부자 할아버지는 왜 부잔고 하니, 무엇이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챙겨 넣어서 그렇지. 뭐든 한 번 손에 쥐면 놓지를 않아. 제 것이고 남의 것이고 한 번 손에 넣은 것은 죽어도 안 내놓아. 탐나는 물건이라도 있으며 얻든지 빼앗든지 해서 다 가져. 그러니 재산이 많지.

한 해는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뱅이 할아버지는 그나마 먹고 살 양식이 떨어졌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지.

“거 보리쌀 있으면 좀 꾸어 주오. 우리 보리가 익으면 배어서 갚을 터이니.”

“그러시오.”

부자 영감이 웬일인지 선선히 보리쌀 한 가마를 꾸어 주는데, 아 집에 와서 풀어 보니 반 넘어 모래에다 보릿등겨가 섞여 있잖겠어. 먹을 만한 보리는 반도 안 돼. 하는 수 없이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이러구러 여름이 되어 보리를 베 가지고 한 가마를 갚았지. 모래도 겨도 안 섞고 잘 익은 걸로 골라서 한 가마를 갚았던 말이야.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이 뭐래나 하면, 이자로 보리쌀 두 가마를 더 내라는 거야 글썄. 웬일로 선선히 꾸어 줄 때 알아

왔지.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

“보리쌀 두 가마 주고 나면 나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어떡하우?”
하니까,

“그건 닥의 사정이야. 정 양식이 없으면 나무라도 해다 주시오. 올 여름내 하루 한 짐씩.”

이리저든. 할 수 없이 그 날부터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다 뒀어.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나무를 해다 주고 집에 오니까 웬 허름한 노인이 와서 하루밤 재워달라네. 이 노인이 부자 영감네 집에 갔다가 퇴자를 맞고 오는 길이었거든.

“아이고,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서 대접을 잘 해줬어. 새로 밥도 따듯하게 짓고 반찬도 있는 대로 정성스럽게 차려서 잘 대접을 했지. 방도 깨끗하게 치워 이부자리 펴서 재우고. 그런데 아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손님이 온데간데 없네. 자던 자리에 부채만 두 개 달랑 놓여 있고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빨간 부채고 하나는 파란 부채야.

“아이고, 이 손님이 부채를 두고 갔네.”

부채를 들고밖에 나가 보니 흔적도 없어. 다음에 찾으러 오면 쥐야지 하고, 그 날 부채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갔거든. 나무를 하다가 날씨가 더워서 빨간 부채를 펴서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어. 한참 부채질을 하다 보니 코가 이상해. 만져보니 코가 이만큼 길어졌네.

‘아이쿠, 내 코가 왜 이래?’

아무리 쓰다듬고 만져 봐도 이진 코끼리 코야. 참 별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설렁설렁 했지. 한참 부채질을 하다가 보니, 이진 또 뭐야. 코가 없

어졌어. 만져봐도 밋밋해.

‘아하, 이게 다 저 부채가 부린 요술이구나.’

빨간 부채를 들고 술술 부치니까 코가 다시 길어지네. 파란 부채로 부치면 또 짧아지고. 그것 참 신기한 부채지.

그 날 그 부채를 들고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부자 영감네 집에 갔다 주러 가니까, 이 영감이 부채를 보더니 탐이 나는지 꼬치꼬치 캐몰어.

“아 그진 또 어디서 났어?”

그래서 이리이리해서 얻었는데 요술 부채라고 가르쳐 줬지. 영감이 빨간 부채를 빼앗아 술술 부치니까 정말로 자기 코가 막 길어지거든. 파란 부채로 부치니까 짧아지고. 욕심쟁이 영감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 저 달라고 떼를 쓰지.

“이이구, 그진 안 되오. 이진 내 것이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거라서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하오.”

그래도 부자 영감은 막무가내야. 나중에는 자기 집을 줄테니 부채와 바꾸자고 그러네.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빼앗고는 집을 바꿨어.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큰 기와집에서 살고, 부자 영감은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살게 된 거지.

이 욕심쟁이 영감이 초가집에 드리누워서 생각을 하니. 이제 돈벌이를 벌겠다 싶거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빨간 부채로 몰래 코를 키워 놓고는 파란 부채로 고쳐 주면서 돈을 벌면 좀 좋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간 부채로 술술 부채질을 하니 이 영감 코가 술술 길어지는 거지. 영감은 돈벌 욕심에 기분이 좋아 그것도 몰라.

“허허, 허허. 이제 온 나라 돈이 다 내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부채질을 하니 코가 어찌 되겠어.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다 올라가다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늘 나라 옥황상제 사는 대궐까지 갔거든.

이 때 옥황상제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을 거닐다 보니, 뭉길쭉한 것이 마당에서 쑥 올라온단 말이야.

“여봐라. 저것이 무엄하게 마당을 뚫고 올라오니 당장 묶어라.”

그래서 신하들이 달려들어 나무에 꼬꽂아 묶었어.

그때 땅에서는 영감이 부채질을 하다 말고 정신이 들었어.

‘아이쿠, 그새 내 코가 지붕을 뚫고 올라갔네. 빨리 짧아지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파란 부채로 막 부채질을 했겠다. 아 코끝이 하늘 나라 나무에 묶여 있으니 어찌 되겠어? 코가 짧아지니 몸뚱이가 코에 매달려 하늘로 둥둥 떠올라가네.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때 하늘에서는 옥황상제가 점잖게 명하기를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풀어 주어라.”

했지. 신하들이 달려들어 묶은 끈을 풀었어. 그래서 어찌 됐느냐고? 그 다음은 나도 몰라.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현암사>

정신없는 도깨비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나이 예닐곱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았어.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려니 좀 힘이 들겠나. 남의 집 굶은일을 거들이 주고 한푼 두푼 주는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지.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어. 그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한 아이가 썩 나타나더니,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치거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야. 도깨비는 머리에 빨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니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두 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친다나.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지.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 아이가 참 놀랐지.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꼬지를 하게 돼. 그래서 태연하게,

“왜 부르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푼만 꾸어 다오.” 이리거든.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 주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걸 꾸어 달라니 딱하게 되었거든. 그래도 안 꾸어 줬다가는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해. 꾸어 줘지. 꾸어 주면서,

“너 이 돈 꼭 갚을 테지?”

하고 다짐을 받았어. 도깨비는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하고는 연기같이 가버렸어.

아이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꾸어 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 날은 쪼쪼 굶었어.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불러.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 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거든.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어.

“어제 꾸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옳다,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쥐. 받았지.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키네 그러.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불러.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 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어.

“왜 그러느냐?”

“어제 꾸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옳다, 받아라.”

이리고 또 돈 서푼을 준단 말이야.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쥐.

“이게 무슨 돈이야? 꾸 돈은 어제 갚았잖니?”

하니까 도깨비가 하는 말이,

“어라 애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만나고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 아하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렀다. 그런데 제가 꾸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 이찌됐든 아이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나 나쁠거야 없지.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 왔어. 또 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 보니 또 어제 꾸 돈 갚으러 왔다네. 이젠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꾸 돈이라지. 그러면서 돈 서푼을 쥐. 두 번씩이나 갚았는데 왜 또 주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 수 없이 받았지.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가네 그러.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꾸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거라.”

하면 돈을 놓고 가지. 이렇게 해서 아이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됐어. 하루 종일 일해 봐야 서푼 받기 바쁘는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아,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 가지를 앓고 머뭇머뭇하더니,

“애, 나 너희 집에서 놀다 가면 안될까?”

이러거든.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 줄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지.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지.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 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거든.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세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이야. 세 냄비를 준다는데 마달 리 있나.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랬지. 그러마 하고 도깨비가 갔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 봤더니, 아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없어서 들고 왔어.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쑈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옳다, 받아라.”

하고 돈을 쥐. 돈 쑈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쑈 돈이라니 참 우습지.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세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이야. 고맙다고 하고 받았지.

이튿날 아침 도깨비가 준 세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어.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 뒀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조화야.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 있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말이야. 먹고 나서 싹 씻어 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 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네 글썄. 그러니까 이게 요술 냄비지.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살판났지.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아. 그런데

더 좋은 건, 그 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거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 보면, 아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단 말이야.

“어제 쑈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옳다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세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거든.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이야.

어찌 됐든 이걸 참 수가 났지. 날마다 공돈 서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그만인데, 요술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수가 어디 있나그래. 아이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어.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났지 뭐야.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 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지.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앓고 머뭇머뭇하더니,

“애,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그러라고 했지.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지. 그런데 이 집에 다듬잇방망이가 하나 있었거든.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닳아서 좀 작아졌어.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

망이를 가지고 왔어. 이번에는 한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뽕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어.

“어제 낚 돈 값으려 왔다. 옳다, 받아라.”

하면서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뽕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뽕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를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줬.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지.

이 아이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 가지고 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아. 그래서 그걸 다듬잇돌에다가 푹푹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리서 새 옷 한 벌 지어 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 금세 새 옷이 턱 나와.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지.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방망이를 두드리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 냈지.

그런데 더 좋은 건 말이야. 그 다음 날부터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도 주고 뽕비도 주고 방망이도 주는 거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 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뽕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거든.

“어제 낚 돈 값으려 왔다. 옳다, 받아라.”

돈 낚 지 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어제래.

“자, 새 뽕비다. 이것도 받아라.”

뽕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줬.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지, 하,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이 난 게 아니지 뭐야. 그 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 푼 에다가 요술뽕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걸 뭐 감당도 못 할 횡재지. 아이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내는 방망이, 은내는 방망이, 옷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어.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큰 부자가 됐지.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 잔치집에 가게 됐어.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불러.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 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아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 있더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 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어.

“아,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거든. 무슨 죄를 지었냐니까.

“살림을 너무 헤프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뽕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아, 이런단 말이야.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이지.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 도깨비 나라 일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이야.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
관이야. 뭐라고 하냐고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
푼 푼 것도 못 갚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러더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갚다 준 걸 죄다 잊
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
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다는군. 뭐 아직도 하늘에
서 벌받고 있는지 몰라. 그런 그렇고 누구든지 도깨비가 돈
꾸어 달라거든 두 말 말고 꾸 주게나. 그렇게만 하면 횡재수
가 터질 테니. 하하.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형제한 사람

옛날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미련스럽고 아우는 착했던
다. 하루는 형이 괜히 심술이 나서 아우 눈에다 재를 뿌려서
소경을 만들어 놓고, 밥도 안 주고 내쫓아버렸다.

쫓겨난 아우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데, 하루는 날이 저물어 어떤 빈 집에 들어갔어. 막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왁자지껄하니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깜짝 놀라 다락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 이놈들이 죄다 도깨비들이야. 글썄 도깨비 집에 들어온
거지.

도깨비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깨
비 한 놈이 하는 말이,

“어떤 미련한 형이 아우 눈에다 재를 뿌려 소경을 만들어
놓고 밥도 안 주고 내쫓은 걸 봤네.”

이리저든.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란 말이야. 다른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는,

“소경 된 눈에는 이 집 동쪽에 있는 버드나무 이파리를
따서 문지르면 도로 밝아지는데, 그걸 모르니 딱하지.”

이러네. 또 한 도깨비는,

“저기 산 너머 동네에는 가물어서 난리인데, 동네에 있는
큰 바위를 들치면 물이 많이 나오는걸 모르고 저 고생일세.”
이런단 말야. 아우는 그 말을 잘 새겨 들었다가 날이 밝아지
니까 더듬더듬 동쪽으로 가서 버드나무를 찾았지. 버들잎을
따서 눈에 대고 문지르니까 신통하게도 눈이 번쩍 뜨였어.
그 길로 산 너머 동네에 가서 큰 바위를 들치니,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고맙다고 돈을 많이 주

네.

그래 놓고, 아우는 버드나무 이파리를 많이 따다가 눈 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막 고쳐 줬어. 갖다 문지르면 번쩍! 갖다 문지르면 번쩍! 온 세상 장님들이 다 눈을 뗐지. 그런데 왜 아직도 장님이 있냐고? 너희들이 그 버드나무 한 번 찾아 봐.

<옛이야기 들려주기 / 보리>

이상한 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선비는 밤만 먹으면 공부만 해, 그러니 집안 일은 아무것도 몰라.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마당에다 우케(벼)를 죽 넣어 놓고 들일 하러 갔거든. 일하다 보니 소나기가 쏟아져.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 글썄, 마당에 넣어 놓은 우케가 빗물에 몽땅 떠내려가고 있잖아. 선비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방에서 글만 읽고 있었던 말이야. 아, 얼마나 화가 났겠어?

“아이고, 나도 이제 이 고생하고는 못 살아요. 굶어 죽이든지 나가서 돈 벌어 오든지 맘대로 해요!”

이러니 선비인들 별 수 있어? 돈 벌러 나섰지. 그런데, 평생 글만 읽던 선비가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야지. 그저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가. 가다보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있는 논에서 조그만 올챙이들이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거든. 가만히 보니까 눈에 물이 말랐어. 물이 말라서 이 올챙이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전런, 쫓쫓. 저것들이 개구리도 못 돼보고 죽겠구나.’

선비는 올챙이가 불쌍해서, 손으로 고이고이 떠다가 근처에 있는 연못에 넣어 줬어. 올챙이들은 이제야 살판 났다고 신나게 헤엄쳐가고, 선비도 마음이 흐뭇해서 또 길을 걸어갔지.

한참 걸어가다 보니 큰 마을이 나와. 거기서 돈 번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남의 논도 매이 주고, 나무도 해다 팔고, 별짓을 다했지만 돈 벌기는커녕 하루하루 먹

고 살기도 바쁘지 뭐야. 평생 글만 읽다 보니 일하는 법을 못 배워서, 돈을 매도 남이 한 마지기 땀동안 겨우 반마지기 매고, 나무를 해도 남이 두집 할 동안 한 집 겨우 하니까 무슨 돈을 벌겠어.

그러저럭 여름이 다 갔는데도 돈 한 푼 못벌고 고생만 잔뜩하다보니 집 생각이 간절하거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같이 일하는 게 낫겠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갔어. 가다가 올챙이 살려준 연못가를 지나는데,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어나오는 거야.

뛰어나와서는 선비 앞에 앉아서 ‘개골개골, 개골개골’ 울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집 나올때 자기가 살려준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되어 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반갑다, 개구리들아.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 보니까, 개구리들이 그냥 나온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 다찌그러진 남비 한개를 끌고 왔거든. 그걸 앞에 놓고 ‘개골개골’울어. 그러더니 남비를 놔두고 폴짝폴짝 뛰어서 연못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선비는 그 남비를 덜렁덜렁 들고 집에 돌아왔어. 아내가 보니까, 돈 벌어 온다고 나간 남편이 겨우 찌그러진 남비 하나를 달랑들고 오거든. 그러니 또 바가지를 긁어.

“여태 어디서 뭘 했기에 쌀 한되밖에 못가져 오고 겨우 한 남비쯤가리요? 쌀도 없는데 남비만 있으면 뭘해요?”

“허허, 하긴 그렇군. 그나저나 배가 고프니 밥좀 주구려.”

“이제 쌀은 딱 한톨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걸로라도 밥을 지어 줘여.”

아내가 남비에 물을 붓고는, 쌀을 한 톨 넣고 밥을 지었어. 아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이 한 남비 가득 들어있지 않았어?

“여보, 여보! 이거 이상한 남비예요. 쌀 한톨 넣고 끓였더니 밥이 가득 찼어요!”

“실마 그럴라고.”

선비가 가서 보니까 정말 밥이 가득 찼거든.

‘아하, 그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이런 걸 줬구나. 참 고마운 개구리들이야.’

선비는 그 남비 덕분에 굶지 않고 잘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이것 좀 봐. 그 남비에 엽전을 한 개 넣고 끓이면 엽전이 가득 차고, 구슬을 한개 넣고 끓이면 구슬이 가득 차네. 뭐든지 한개만 넣고 끓이면 가득 차서 나오니 얼마나 좋아.

선비의 아내는 재미가 나서 매일 같이 엽전을 넣고 끓여댔대. 하도 많이 끓여대니까, 하루는 그만 남비가 불에 녹아버렸대. 그렇지만 조금도 걱정 없어. 그날이 바로 선비가 과거에 급제한 날이었다니까 말이야.

<옛이야기 들려주기/보리>

중국임금이 된 머슴

머슴이 임금 된 이야기 하나 하지. 옛날에 남의 집 머슴사는 총각이 살았거든. 이총각이 일을 잘해서 농사를 다락같이 지어 났는데,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은 않고 밥 많이 먹는다 고 구박이야.

"너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다간 우리 집 살림 다 들어 먹겠다."

이러면서 먹던 밥까지 빼앗아 가네. 총각이 화가 나지 안 나겠어.

'에라. 이집 나가서 판데 가서 머슴 살고 말지.' 생각하고는,

"나 나간다. 나 나간다."

한다는 것이 말이 새서,

"나 난다, 나 난다."

이러거든. 주인이 들어보니, 난데없이 난다네. 하늘로 훨훨 나는 줄 알고,

"야, 이놈아. 내가 정말 난단 말이나?"

하고 물으니, 총각이 슬그러니 장난끼가 돌았어. 그래서,

"야, 내가 날지요."

"어대 그럼 날아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고을 사또가 날아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영감님이 날아란다고 날겠어요? 원, 별소리를 다하세요."

했거든. 이 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장 사또에게 달려가서 고해 바쳤네. 우리 집 머슴사는 놈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

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또가 영을 내려서 이 머슴을 잡아 갔어. 데려다 놓고,

"네가 정말 나느냐?"

하니까, 이 머슴이 이제 장난질에 이골이 났네. 큰소리를 쳐.

"예, 납니다."

"어디 한번 날아 보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라에 임금님이 날아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사또님이 날라란다고 날겠습니까? 안 날지요."

이러니, 사또가 화가 나서,

"이놈을 당장 큰 칼에 썬워서 옥에 가두어라."

하고는, 당장 나라의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렸네. 우리 고을에 이러이러한 머슴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임금님이,

"당장 불러 올려라."

해서 또 임금님 앞에 불러 갔어. 임금님이 물기를,

"네가 정말 날 줄 아느냐?"

하니까, 이머슴이 참 딱하게 됐거든. 이제 와서 못 난다고 하면 거짓말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고, 이러나저러나 벌 받기는 마찬가지아니겠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큰소리를 쳤어.

"예, 날다뿐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날아 보아라."

하니까,

"아이고, 중국 임금이 날아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임금님이 날아란다고 날겠습니까? 못날지요."

이리고 간 큰 소리를 하네. 임금님이,

“그것 참 맹랑한 놈이로구나. 갖다 가두어라.”
하고 머슴을 옥에 가두었어.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소식을 중국 임금에 들었나 봐. 조선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는,

“당신네 나라에 나는 사람이 있다니, 구경 좀 하게 보내 주시오.”

하거든. 그래서이 머슴이 이제 중국까지 가게 됐네그려. 중국에 가니까, 조선에서 나는 사람 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온 장안에 들어차게 모였어. 모여서 머슴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난리났지, 뭐. 이 머슴이 아주 거만하게 뽐을 내면서 중국 임금 앞에 딱 나갔지.

“그래, 네가 날 수 있느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게 됐으니, 또 큰소리를 치는 거지.

“예, 잘 날지요.”

“한번 날아 봐라.”

하니까,

“아이구, 그러 아무때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도 시도때도 없이 날아요?”

했거든.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까짓것, 중국까지 왔으니 실컷 구경이나 하고 죽자고 생각하고,

“한달 뒤에나 날지요. 그 전에는 절대 못 날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나는 사람 왔다고 대접을 아주 잘 해줘. 잘 얻어 먹고, 구경 잘 하다가 약속한 날이 되었던 말이

지. 중국 임금 앞에 불려갔어.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날 테니, 저 큰 산 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날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 임금하고 구경꾼들이 모두 모여 산 밑에 가서 와글와글거리는데,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리보고, 저리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떨어져 죽을 데를 찾거든. 까짓것, 떨어지는 거나 나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하고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 어디서 말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 보니, 조그마한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거든. 가만히 보니, 무당이 굿할때 쓰는 부채처럼 방울 달린 커다란 부채가 하나 있고, 스님이 입는 장삼처럼 소매가 넓고 길다란 옷이 한 벌 있단 말이야.

“너희들 여기서 뭘 하니?”

토끼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나는 옷이거든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펴서 술술 부치면 하늘로 말 올라가는 건데, 이것을 내가 먼저 주웠는데 재가 제것이라고 우기잖아요.”

“아네요. 내가 먼저 주웠는데 재가 우기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야. 이것 참 잘 되었다. 싶어서 토끼들을 잘 구슬렸어.

“애들아, 너희들 중에서 누가 이걸 갖든지 못가진 쪽은 섭섭할 것 아니냐. 괜히 이것 때문에 싸우면 사이만 나빠질 테니, 차라리 날다오. 그게 내 목숨 살리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토끼들이 한참 수군수군하더니 그걸 주네. 고맙다 하고서 그 옷을 입고 부채를 켜켜서 부치니까 몸이 뚱뚱 떠

올라. 한참 등등 떠서 올라가다 보니, 아차, 내려오는 방법을 안 배웠네. 밑에 가물가물하는 토끼들을 보고 큰소리로 물었어.

“애들아, 이거 내려갈땐 어떻게 하는 거니?”

“부채를 한 쪽씩 접으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한쪽씩 접으니까 몸이 슬슬 내려와. 그렇게 해서 중국 임금에 있는 곳에 덩실덩실 내려갔지. 중국 임금이 아주 놀라서 눈이 왕망울만해졌어. 머슴한테 묻기를,

“나도 그것 입고 부채질하면 날 수 있을까?”

“그렇겠지요.”

“그 옷 좀 빌려 주겠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중국 임금이 옷을 입고 부채를 부쳐서 등등 떠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임금이 내려오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냥 높은 데서 등등 떠 다니기만 하는 거지.

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임금이 안 내려오니까, 조선에서 온 이 사람을 새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논을 해서, 이 머슴이 그만 중국 임금이 되었구나. 하늘로 올라간 현 임금은 소리개가 됐고, 그 소리개는 아직도 못 내려오고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대.

머슴이 임금 된 내력이 이렇단다.

<옛이야기 들려주기/보리>

재미있는 옛이야기
발행처/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발행일/1999년 2월6일
워온어/옛이야기 공부모임